2019. 06. 27

CONNECTING DOTS

SUNBO ANGEL PARTNERS

선보엔젤파트너스 소식지 #06

선보엔젤파트너스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1호 결성

100억 규모 펀드 조성으로 국내 최고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 구축

선보엔젤파트너스가 100억원 규모의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1호를 결성했습니다. 개인 투자조합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 모태펀드가 60억원을, 선보엔젤파트너스는 40억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이번 펀드 결성을 통해 선보엔젤파트너스는 팁스와 더불어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강력한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IBK 창공(創工) 부산 개소식 개최

지난 5월 31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IBK 창공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진 기업은행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창공 부산'의 운영사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오종훈 공동대표는 " 부산과 울산에 전국 제조기업들의 30~40%가 몰려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들이 성장하기에 좋은 네트워크가 부산에 형성돼 있다"며 "글로벌 벌 접근성도 좋다는 점에서 창업 성공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링크>

선보엔젤파트너스 창립 3주년 창립 기념 행사 ' 가족이 최고다'

지난 4월 5일 부산 웨스틴호텔에서 선보엔젤파트너스 창립 3주년을 기념하는 '가족이 최고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선보엔젤파트너스 임직원 가족을 비롯해 모회사인 선보공업과 협업 관계사인 라이트하우스, 아이파트너즈 등 약 6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최영찬·오종훈 공동대표가 환영 인사로 행사의 문을 열었고, 고덕수 이사의 회사소개와 창립 직원인 문선영 대리의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금식 선보공업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직접 선보공업의 배지를 전달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은 저글링쇼와 레크레이션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최영찬 대표가 직접 준비한 선물을 직원 가족들에게 전달하면서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최영찬 대표는 " 창립 3주년인 만큼, 회사 일의 가치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AIN NEWS – CONNECTING

기성전선과 고부가가치 케이블 JV설립

선보엔젤파트너스는 기성전선과 신사업 발굴을 공동 추진했습니다. 이는 중견기업과 창업생태계 접목을 시도한 오픈이노베이션의 첫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케이블 개발 신규법인인 피츠케이블이 설립됐습니다. 피츠케이블은 차폐 기능 및 10Gbps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통신용 케이블CAT.7의 생산 특화 개발 기업입니다.
또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보다 빠른 사업화가 기대됩니다.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은 신시장 창출을 위해 모기업에서 Spin-off를 하거나 설립 예정인 법인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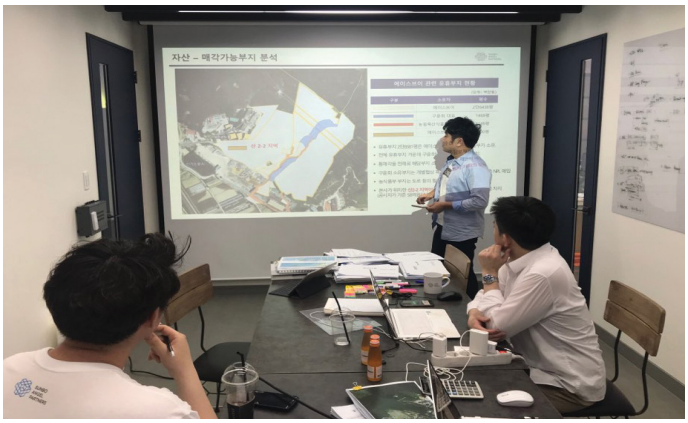
조광페인트 및 UNIST 박혜성 교수 혁신소재 JV 설립

선보엔젤파트너스와 조광페인트는 신사업을 만들기 위해 2018년 한 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요 기술 공유, 소속 직원 파견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를 통해 고성능 수전해 촉매 개발 기업 'RIFORMA'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RIFORMA'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첫 번째 협업 사례입니다. 지난 2월 RIFORMA는 TIPS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중견기업의 역량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활용한 Joint Venture를 설립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중견기업들의 혁신을 지향하는 선보엔젤파트너스의 '투자플랫폼'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많은 중견기업들이 선보엔젤파트너스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보유니텍, 현대공업, 현대알비, 삼신교통, 모든, YCTEC 등 굴지의 중견기업들이 선보엔젤파트너스에 투자하여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파트너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들이 함께 공유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한단계 도약하고자 합니다.

중견기업과 M&A 프로젝트 런칭
에이스브이 인수 도전



지난 4월 선보엔젤파트너스와 중견기업(선보공업)의 첫 합작 M&A가 진행됐습니다. 인수대상은 국내 1위 선박용 특수밸브 업체인 에이스브이였습니다.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탓에 매각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스토킹호스는 조건부 우선협상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최종 경쟁입찰 후에도 스토킹호스에게는 한 번 더 입찰이 가능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선보컨소시엄을 포함해 5파전 양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선보컨소시엄은 가장 높은 금액인 180억원을 제시했고 입찰 결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토킹호스인 대신F&I가 막판 권리를 행사하면서 최종 인수에는 실패했지만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자체 M&A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M&A 플레이어로 시장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계기가 됐습니다.

ROUNDTABLE

라운드테이블 연결의 의미

지역 중견기업, 벤처캐피탈 그리고 스타트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선보엔젤파트너스의 투자 유치 플랫폼 라운드테이블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사업을 고민하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이뤄내고 동반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운드테이블의 성과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8번의 라운드테이블이 열렸고, 36개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100억원에 달합니다. 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 중 90% 이상이 지역의 스타트업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호남권까지 지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in 부산 #25

지난 3월 21일 선보엔젤파트너스 부산 본사에서 25회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의 첫 사례인 '조광페인트 프로젝트'의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첫 협업 사례로 기록된 'RIFORMA'의 IR까지 이어져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 선보엔젤파트너스의 포트폴리오 기업 드림에이스의 IR과 큐리어스파트너스 박승근 대표의 기업구조조정 M&A 프로젝트 사례 등이 발표됐습니다.

라운드테이블 in 광주 #26

지난 4월 23일 광주 이노비즈센터에서 두 번째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광주로 거처를 옮긴 최영찬 대표는 "광주에서 남부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라이트하우스의 고병철 대표의 라이트하우스&중견기업 연합 펀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해 중견기업 및 투자기관, 공공기관, 스타트업 등 업계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해 호황을 이뤘습니다. 최영찬 대표는 "부·울·경을 넘어 호남권 기반으로 확장하면서 대한민국 남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발하게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OUNDTABLE

라운드테이블 in 부산 #27

선보엔젤파트너스의 '라운드테이블'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 그리고 글로벌로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27회 라운드테이블에는 광주지역 대표 언론사 무등일보, 대구의 삼보모터스, 베트남 진출기업인 성현비나 등이 참석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벗어나 전국에 선보엔젤파트너스 파트너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의 중견기업들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을 꿈꿨습니다. 이날 세션은 독일 벤처캐피탈 레드스톤과 선보엔젤파트너스의 협업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명 투자사인 루멘캐피털 진재욱 대표의 '글로벌 유니콘 펀드 프로젝트', 김상혁 플레이오토 대표의 '온라인커머스 생태계' 등의 강연으로 구성됐습니다.

라운드테이블 in 부산 #28

"4차산업혁명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BIG BLUR(불편한 과정들이 생략되는 것)'될 것이다" - 황윤익 쏘카 사업개발본부장 -
라운드테이블은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공유하는 혁신적 네트워크의 장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선보엔젤파트너스 부산 본사에서 진행된 28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공유경제' 대표 기업들이 참석해 '4차산업혁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소개했습니다. 국내 1위 공유 차 업체 쏘카의 황윤익 사업개발본부장은 '4차산업과 모빌리티'라는 주제의 세션에서 "불편한 많은 과정들이 사라지면서 '혁신'에 다가갈 수 있다"고 전하면서 이날 참석한 버스, 자동차 산업군 기업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유오피스 대표기업인 패스트파이브의 김대일 공동대표의 '공유오피스의 현황과 미래', 현석진 사이버다임 대표의 '보안과 제조업 4.0'의 세션도 많은 중견기업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MAIN NEWS – GLOBAL

SINGAPORE ◇ 'SUNBO Partners' 자회사 설립

2019년 4월 싱가포르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 싱가포르 오피스가 <SUNBO Partners>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국 벤처투자 싱가포르 센터를 설립한 김상수 대표의 영입과 동시에, 현지 직원 채용을 통해 글로벌 투자 회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 김상수 대표 인터뷰 : 7면

GERMANY

선보엔젤파트너스 X 독일 레드스톤 '스마트 팩토리 글로벌 스타트업 소싱 프로젝트'

독일의 VC Redstone Digital GmbH (이하 'Redstone') 와 함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테마로 스마트 팩토리 글로벌 스타트업 소싱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딥 러닝 및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선별한 후 가장 정확한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5,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협동로봇 및 관절부분에 적용되는 서보모터 기술을 보유 기업인 Rozum Robotics을 발굴했습니다. 현재 투자 전략 디자인 및 Due Dilligenc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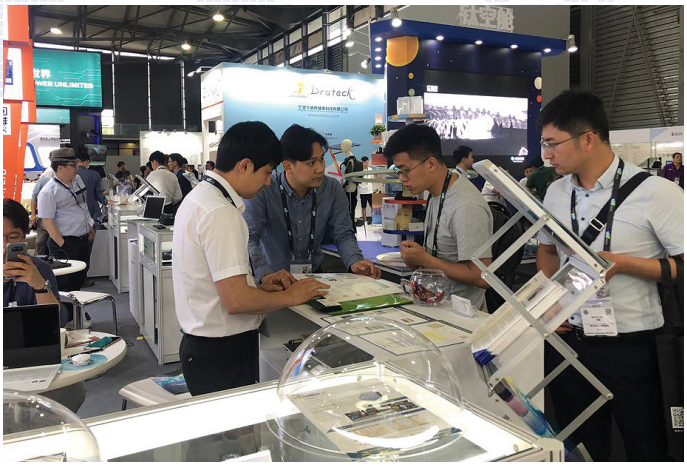
비바 테크놀로지 2019 참가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최대 혁신기술 컨퍼런스인 '비바 테크놀로지 2019'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네 번째를 맞이한 비바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기업과 전 세계 스타트업, 투자자 등이 한데 모여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프랑스 최대 국제 스타트업 행사입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행사 기간 동안 만난 CVC에 글로벌 딜 플로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공동투자를 통한 협업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유럽 CVC와의 협업으로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MAIN NEWS – GLOBAL

CHINA

CES 아시아 2019 참가



선보엔젤파트너스와 광학산판 기술 스타트업 '첨단랩'은 6월 11일부터 3일간 중국 상하이 신국제전람센터에서 열린 'CES 아시아'에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CES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 정보통신(ICT) 박람회입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의 글로벌 팀은 행사 기간 동안 중국 최대 UVLED 업체인 Sanan, 크라운해태 등 업계 종사자와의 바이어 미팅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성공적인 중국 진출과 현지 투자유치 및 파트너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강과덕인큐베이터 MOU 체결

지난 5월 30일 중국 중강과덕인큐베이터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중강과덕인큐베이터는 국유 철강회사인 중국 중강 그룹의 완전출자 회사로 광산 자원 개발과 기술 개발 판매 사업 등을 하는 기업입니다. 중강과덕인큐베이터의 모회사인 중강그룹은 한 해 매출 약 11조원을 기록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국유 철강기업입니다. 최근 혁신의 일환으로 톈진 이노베이션 센터(자유무역국가)를 중점으로 칭다오, 광저우에도 이노베이션 센터를 증설할 예정이며, 우수 창업기업 및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는 양사가 제조산업 기반 모회사의 기술 신사업 확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수한 한-중 창업팀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교두보로 삼아 투자 연계까지 이어갈 방침입니다.

WEGO Capital과 한-중 펀드레이징 논의

지난 6월 5일 중국 위해시에 위치한 CVC WEGO Capital을 방문했습니다. WEGO Capital은 WEGO Group의 자회사로, 산동성 소재의 공공투자기관인 국유자산투자홀딩스와 1,4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운용하는 글로벌 벤처캐피탈입니다. WEGO Capital의 모회사인 WEGO Group은 의료기기와 바이오 전분야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매출 약 4조 원의 중국 주반(메인 증권 거래소) 상장사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선보엔젤파트너스는 한-중 합작 의료, 바이오 펀드 조성을 논의했습니다. WEGO와 한-중 펀드 합작을 통해 한국 유망 바이오팀들의 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AIN NEWS – GLOBAL

SUNBO Partners PTE. LTD. - 싱가포르 법인 김상수 법인장 인터뷰

"현지인 채용 원칙으로 아시아 시장 도전"

김상수 대표 / CPA, CFA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삼정 KPMG 회계법인

"한국벤처투자 동남아 센터 설립 및 총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펀드의 사후관리를 전임했습니다"

Q. 선보엔젤파트너스에 합류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한국벤처투자(이하 'KVIC')에서 2015년 8월 싱가포르 센터를 설립한 이후 지인을 통해 최영찬 대표를 소개받았습니다. 마침 최영찬 대표가 싱가포르에 와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최 대표가 선보엔젤파트너스(이하 '선보엔젤')가 싱가포르를 통해 해외에 진출할 계획을 이야기했고, 선보엔젤파트너스가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이 벤처투자에 대한 미래를 제시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Q. 싱가포르 법인에서 기획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는 벤처 또는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벤처펀드는 현재 센토라는 현지 업체와 논의 중입니다. 우선 라이트하우스와 Co-GP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중동 북아프리카 최대은행인 QNB(Qatar National Bank)와 JV 벤처캐피탈을 논의 중입니다. 두 번째는 선보엔젤의 네트워크인 중견기업이 동남아시아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해외 진출 특히 동남아 시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의지는 큰데 이를 제대로 연결해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본사와 현지 직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입니다.

Q. 인력구성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지인 채용을 통해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나요?

현지 사업을 하려면 현지 적응과 친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에서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현지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선보엔젤의 큰 전략에 맞추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인 채용을 한 후 한국 본사에서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지인들과 교류를 하고 서로를 배우면서 발전해야 합니다. 저는 현지 인력과 본사 직원과 교류를 자주 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SUNBO Partners PTE. LTD. Family

Goh Ming Jin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 / 회계학

테마섹 홀딩스
HSBC 은행

Alvin JinMing Ng
호주 멜버른 대학교 / 의과학 박사
싱가포르국립대학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공과대학교
국립연구재단 (싱가포르 총리실)

Li Zhaohao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벨트 로드 캐피탈 매니지먼트(PE)
프로스트 & 설리번 상하이

신범교
부경대학교 의공학 / 경영학

싱가포르 종합 컨설팅

MAIN NEWS – START UP

지역기반 '스타트업' x 지역경제 '활성화'

2019년 상반기 'IBK창공 부산',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글로벌액셀러레이팅', '19년 광주 특구 사업', 'GIST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연내 약 50여 개의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투자 및 보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BK 창공(創工) 부산 1기 선정

선보엔젤파트너스가 IBK 창공(創工)부산 운영사로 선정되었습니다. IBK 창공은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자 및 융자, 컨설팅, 사무공간 등의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창업 육성 플랫폼입니다. IBK 창공 부산 1기의 육성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로 1대 1 멘토링과 투자검토 및 사업개발,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수기업을 선발해 직접투자와 후속 투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4월 19일 마감한 IBK 창공 부산 1기에는 전국 288개 스타트업이 지원해 약 19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사링크>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선정

해양수산 분야 유망한 창업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에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창업, 투자 교육, 경영 자문 등 종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사링크>

GIST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선정

GIST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GIST 기술 창업팀에 멘토링, 교육을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산업체, 투자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술-산업-투자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창업 활동과 투자유치를 동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포트폴리오 후속투자 유치 소식 : 선보엔젤파트너스

JD 바이오사이언스

51억원 규모 투자유치

비만 및 NASH 치료제를 개발하는 JD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시리즈A 투자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초기투자 이후 동물실험, 임상테스트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밸류업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치료제 개발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지난 1월 시리즈A에 미래에셋대우, 현대기술투자와 같은 VC들이 4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어 6월에도 시너지IB가 10억원을 후속 투자했습니다.

메디맵바이오

30억 규모 투자유치

노인 맞춤 면역 항암제 개발기업인 메디맵바이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메디맵바이오 초기투자 이후 항암제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바이오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또 많은 벤처캐피탈을 만나면서 메디맵바이오가 가진 기술의 우수함을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3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페스카로

10억규모 투자유치

페스카로는 지난 5월 현대기술투자에게 10억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투자유치를 계기로 더 빠른 성장을 돕기 위해 선보엔젤파트너스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6월 페스카로는 현대캐피코 IR을 통해 향후 협업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고, 센서 전문기업 오토닉스와는 라이다 제조 사업 보안칩 공급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써니웨이브텍

10억규모 투자유치

써니웨이브텍이 10억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써니웨이브텍은 극한 환경용 금속 통신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회사의 밸류업을 위해 중국 기업 소개, 하수도관 현대화 사업 리서치 등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TIPS에 선정됐습니다. 또 후속투자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U-TECH 밸리사업도 도왔습니다.

사피엔반도체

10억규모 투자유치

사피엔반도체가 10억규모의 시리즈A 투자유치했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디벨롭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U-TECH 밸리 지원, 중국 Changelight 협업지원 등을 했습니다. 사피엔반도체는, 극한 환경용 금속 통신 솔루션 개발 기업입니다.

신규포트폴리오

케이넷이엔지
Deep Learning을 활용한 객체형상 모션인식 기술 개발 기업

RIFORAMA
고성능 수전해 촉매개발기업

피츠케이블
차폐기능 및 10Gbps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통신용 케이블 생산기업

일루넥스
기업 및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술 검색 엔진

NMC
경량화 및 효율 극대화를 통해 비출력을 높인 전기차용 모터 개발 기업

포트폴리오 News : 라이트하우스

정육각, 文대통령과 핀란드 순방

초신선 정육점을 지향하는 축산 스타트업 정육각이 문재인 대통령 핀란드 순방의 경제사절단에 포함됐습니다.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진 핀란드 순방에는 스타트업 53개사,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25개사, 대·중·소 기업 13개사, 기관·단체 11개사 등 총 118개사가 참석했습니다. 스타트업 중심으로 경제사절단이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이트하우스는 정육각에 지난해 5억원 첫 투자를 집행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후속 투자 10억원을 결정했습니다.

SUNBO FAMILY NEWS

선보엔젤파트너스

2019 상반기 공개채용 신입사원 교육

지난 3월 6일 선보패밀리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된 신입 사원 입문 교육이 선보공업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선보공업의 회사소개로 시작한 입문교육은 조선 시황 및 주력, 직장 내 정보 보안 교육과 투자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CEO와 대화시간에 선보공업의 최금식 회장은 신입사원에 직접 명함을 건네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선보의 미래 주역이 되길 바란다" 고 격려했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역량 강화에 맞춰 진행된 이번 채용을 통해 언론인 출신, 대기업 연구소 출신 등 다양한 산업군의 직원이 채용 됐습니다.

선보공업

한국산업단지공단 글로벌 선도기업협회 방문

지난 5월 10일 선도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 및 부산지회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진행된 선도기업 정기교류회가 선보공업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입주 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기업을 발굴해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글로벌선도기업 선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부산 기업은 14개 업체입니다. 지난 2015년 최금식 회장은 부산지회의 지회장을 맡아 활동 중입니다. 이날 교류회에는, 선보공업 최금식 회장을 비롯해 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 대표, 한국산업단지공단(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KICOX) 글로벌선도기업협회 선도기업 회장단, 지회장단, 부산지회 회원사 회원 등 총 31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J'CAR
share future

현대공업 X 라이트하우스 공동투자

라이트하우스와 현대공업이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전기차) 카 셰어링 스타트업 제이카에 각각 4억원과 6억원, 총 1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2016년 4월 설립된 제이카는 2017년 10억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고, 설립 3년 만에 50억원의 누적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제이카는 이번 투자 유치에 성공해 연말까지 호남권을 넘어 서울, 울산 등 전국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혀 갈 계획입니다.
<기사링크>

SUNBOANGEL PARTNESR NEWS

포브스 3월호 – 부울경의 젊은 도전

Forbes Korea 3월호, 제조업 2세 경영자들의 위기돌파 프로젝트 <부울경의 젊은 도전> 커버 기획에 현대공업 강현석 대표, 기성전선 박민준 대표, 오토닉스 박용진 대표, 선보엔젤 파트너스 &라이트하우스 최영찬 대표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혁신가와 기업가의 협업을 상징하는 '한국판 루나 소사이어티 ' 의 부활, 부·울·경 중견기업 2· 3세 15명이 모일 수 있던 배경, 이들이 시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등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실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견기업과 외부 생태계를 연결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업을 혁신하는 것이다.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고 해외 스타트업도 발굴하고 있다" (본문 인터뷰 중 최영찬 대표의 말)

<선보엔젤부터 라이트하우스까지의 여정 : 기사링크>
<부울경 중견기업 2세 기업인 좌담회 : 기사링크>

포브스 6월호 - 후계자의 길

FOR LEADER

후계자의 길

한국 산업은 세대교체 시기를 맞고 있다. 단순히 창업가가 자식에게 사업을 물려준다는 개념보다 고차원적이다. 창업가와 후계자 간 간극을 좁히는 일은 기업의 명운을 가른다. 배병렬 선보엔젤파트너스 공동대표

후계자의 몫은 창업가가 보여준 경영자의 태도를 배우고 한편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익히는 것이다.

최영찬 대표의 관점에서 바라본 후계자의 길은 단순한 경제적 관점의 경영승계가 아닙니다. 앞 세대가 일궈온 경영환경을 혁신하려는 시도입니다. 노동집약적 사업에서 기술집약적 사업으로 전환한 진솔한 이야기가 실려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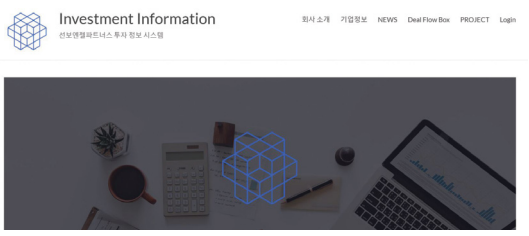
"한국 산업은 세대교체 시기를 맞고 있다. 단순히 창업가가 자식에게 사업을 물려준다는 개념보다 고차원적이다. 창업가와 후계자 간 간극을 좁히는 일은 기업의 명운을 가른다" <기사링크>

조선일보 잡스엔 인터뷰 - "창업 성공률 높은 나이대는…"

조선일보 잡스엔에 고덕수 이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특성과 좋은 심사역이 되기 위한 하루 일과가 실려 있습니다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와 산업을 혁신하려는 깊은 고민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사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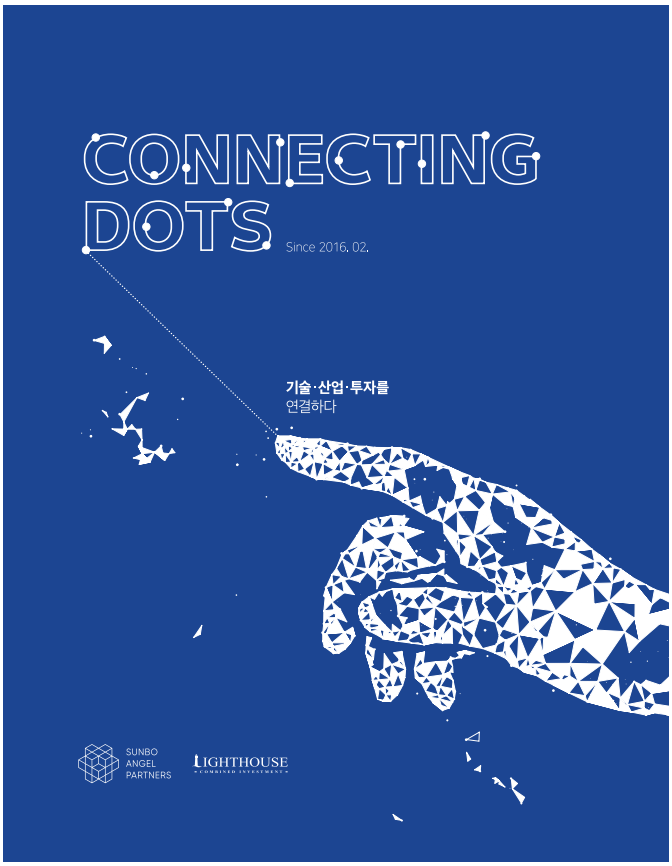
오픈이노베이션 'DB 포털사이트' 오픈



AI 알고리즘 기반의 투자 정보 시스템 'DB 포털사이트'를 론칭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파트너 기업의 소식과 회생 기업 현황, 스타트업 투자 및 기술 개발 동향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보엔젤파트너스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 노력해온 노하우를 DB 플랫폼에 결합하여 각 주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SUNBOANGEL PARTNESR NEWS

선보엔젤파트너스 설립 3주년 기념 매거진 발간
향후 3년은 세계시장을 먼저 걷는 자(先步)



18세기 영국에는 '루나소사이어티'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증기기관 발명가 제임스 와트, 화학자 조지프 프리스틀리, 기업가 매슈 볼턴과 웨지우드 등이 '증기기관'을 어떻게 산업에 적용할지 토론하던 장이었죠. 바로 세상을 바꾼 2차 산업혁명의 발원지입니다.

2016년 2월 말 시작한 선보엔젤파트너스가 설립 만 3년을 맞이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 어떻게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했고, 기술과 투자 그리고 글로벌 생태계 안에서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루나소사이어티'와 같이 기술, 산업 그리고 투자 생태계를 연결해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 일에 몰두해왔습니다. 우리의 '라운드테이블'이 대표적입니다. 기업가와 스타트업 관계자,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함께 디자인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개의 스타트업의 설립을 지원하고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77개의 중견기업 생태계와 연결했고 이들은 이제 글로벌로 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의 모태가 된 선보공업은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됐습니다. 선보공업은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이라는 조선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신뢰와 혁신의 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의 이면 이야기, 대학으로부터 기업으로 '연결'이 변화를 이끈 과학기술원과의 상생스토리. 글로벌 시장 진출 첫걸음의 생생한 스토리를 3주년 매거진 <CONNECTING DOTS> 에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 산업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투자산업이 가장 먼저 변해야 합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우리가 가진 산업과 혁신적인 기술 스타트업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의 거인들과 경쟁하고 공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태가 됐던 '선보공업'의 선보(船寶)는 '바다의 보배'를 뜻합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선보(先步)는 세계시장을 '먼저 걷는 자'라는 의미를 담으려 합니다. 글로벌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2019년을 글로벌 진출의 원년으로 삼고 국경을 초월한 무국적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